

## 정상화, 〈무제 86-1-7〉, 1986

화면의 균열 위로 끝없이 떼어내고

또 덮는 작업 과정을 통해 완성되는 정상화의 회화.

<무제 86-1-7>의 캔버스를 채운 다채로운 청색의 조화는  
우리를 경외감과 신비로움의 세계로 이끈다.

송 애 리

정상화의 회화는 그리지 않은 회화다. 그의 작업은 철저하게 계산된 끊임없는 노동의 연속으로 완성된다. 화면의 균열 위로 끝없이 떼어내고 또 덮는 작업 과정을 통해 작품이 완성된다는 점에서, 그의 작품은 곧 수행의 예술이다. 그의 작품에는 시간이 담기고, 수많은 공간이 쌓인다. 그의 작품은 어떠한 이미지 없이 캔버스 자체가 작품이 된다. 작가는 작업을 하는 것 그 자체가 “나의 언어”라고 강조한다. “나의 작업은 높고 낮음으로 형성되어 가는 철저한 평면의 추구이다. 내 작업의 과정은 캐어내고 채집하는 것이다.”<sup>1)</sup>

과연 정상화의 작품은 어떤 과정을 거쳐 완성되는 것일까? 평론가 이일은 정상화의 독특한 회화가 성립되는 과정을 다음처럼 적어 두었다.

“언뜻 보기에 그의 작품은 획일적이고 냉랭한 것도 같다. 기법상으로 볼 때, 그 작업은 철저하게 직인적(職人的)이며 고도의 집중력과 끈기를 요한다. 우선 그는 캔버스에 약 5mm 두께의 징크(zinc) 물감을 초벌 칠한다. 그다음 그것이 완전히 마르기를 기다려 캔버스를 뒤로 규칙적인 간격으로 가로, 세로 접으며 표면에 고루 바둑판무늬 모양의 균열을 새기게 한다. 이것이 그의 1단계 작업이다. 그리고 제2단계는 보다 치밀한 작업을 필요로 한다. 화면을 수직, 수평으로 때로는 사각(斜角)으로 그물처럼 오가는 균열에 의해 만들어진 무수한 작은 네모꼴로부터 하나씩 징크 물감을 떼어 가는 것이다. 그리고 그 자리를 이번에는 꼬박꼬박 ‘아크릴릭’ 물감으로 몇 겹으로 메우는 것이다. 그리하여 ‘모자이크’ 모양의 그의 독특한 회화가 성립된다.”<sup>2)</sup>

갤러리현대의 50주년을 기념한 《현대 HYUNDAI 50》전에는 무수한 ‘떼어내기’와 ‘덮어내기’를 통해 완성되는 그의 작품 세계를 대표하는 두 점의 아름다운 회화가 출품되었다. 1974년에 제작된 백색의 <Untitled 74-6>과 1986년에 제작된 청색의 <Untitled 86-1-7>이다. 작가는 때때로 검은색, 갈색 등을 쓰기도 하지만, 그가 캔버스를 다시 채울 때 주로 쓰는 색은 백색 혹

1. 정상화, 『CHUNG SANG-HWA SEVEN PAINTINGS』, LEVY GORVY, 2017

2. 이일, 「은밀한 숨결의 공간-정상화전에 부쳐」, 『비평가 이일 앤솔로지(하)』, 미진사, 2013

은 청색이다. 평론가 오광수는 정상화의 작품에서 보이는 청색의 독특함이 관객을 알 수 없는 깊이의 심원으로 안내한다고 분석한다. “청색은 항상 깊이 동반한다. 깊이의 차원을 이야기할 때 청색을 떠올리게 된다. 끝없는 창공의 깊이는 어슴푸레 하면서도 점점 깊어지는 청색으로 함몰된다. 깊이를 알 수 없는 대양의 짙은 청색은 경외감과 신비로움으로 우리를 설레게 한다. 그러기에 청색은 이 지상의 색이 아니다. 언제나 저쪽의 차원을 지닌다. 그가 보여주는 청색의 모노크롬도 알 수 없는 깊이의 심원으로 우리를 손짓한다.”<sup>3)</sup>

정상화는 어릴 적부터 미술에 재능을 보였다. 마산고등학교 재학 시절 마산고등학교 미술부 1등상(1952),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제6,7회(1955-56) 미술전에서 수상하며 일찍이 그림 실력을 인정받았다. 1960년대 제작된 정 화백의 초기 작업은 미국의 추상표현주의와 유럽의 앵포르멜에 영향을 받은 한국 앵포르멜 운동의 작품 경향을 대표한다. 어두운 색감과 화면에 두드러진 조형적 요소와 재료의 물성 등이 특징이다. 그는 1960년대 들어 적토색, 짙은 주황색 등을 중심으로 색채 관계를 구체적으로 실험했으며, 동시에 카오린(고령토)과 같은 비전통적 재료를 활용해 캔버스 표면의 가능성을 본격적으로 탐색하기 시작했다.

1970년대, 정 화백은 일본과 프랑스를 오가며 활동을 이어갔다. 1969년 파리에서 고베로 이주한 그는 요시하라 지로(吉原治良), 시라가 카즈오(白髪一雄) 등 일본을 대표하는 아방가르드 그룹인 구타이(具体)의 작가들과 활발히 교류했다. <Work K-3>(1970)와 <Work 70-9-15>(1970) 등 이 시기에 제작한 작품은 직관적으로 완성된 듯한 추상적 구성을 보인다. 하지만, 작품의 표면을 반복적으로 들어내고 메우는 작가만의 엄격한 프로세스를 거쳐 화면의 형태를 전략적으로 드러내거나 감추며 치밀하게 완성한 작업들이다. 이후 1970년대 후반 <Untitled 78-11-29>(1978)와 같은 작품에서 볼 수 있는 직사각형 격자(그리드) 형태에 이르기까지, 작가는 계속해서 자신만의 작업 방식을 체계적으로 발전해 나갔다. 1977년 파리로 돌아간 정 화백은 15

3. 오광수, 「평면의 구조와 깊이의 차원-정상화의 방법과 근작의 세계」, 『정상화』, 갤러리현대, 1983

년 후 귀국해 현재까지 경기도 여주에서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작가는 특히 1970년대 작품의 “들어내고 메우는 표현의 반복을 통해 회화의 캔버스를 본격적으로 의식하며 작업한 결과물”이라고 설명한다.<sup>4)</sup>

갤러리현대에는 1983년 정상화의 개인전을 처음 개최했는데, 당시 작품작을 보고 이우환 작가는 “세계 어디를 다녀도 이런 장인 정신을 갖고 이렇게 어려운 작업을 하는 작가는 보지 못했다”는 호평했다. 이후 1987년 한국 갤러리로는 처음으로 시카고에서 열린 해외 아트페어에 참여하며 정상화의 회화를 선보였다. 2017년까지 총 10회의 개인전을 통해 정상화의 작품 세계를 국내외에 소개했다. 작년과 올해에 걸쳐 레비고비 뉴욕과 런던을 순회한 개인전 <정상화: 발굴, 1964-78>(Chung Sang-Hwa: Excavations, 1964-78)도 갤러리현대와의 협력으로 마련됐다. 전시는 작가가 1960-70년대 파리-고베-파리 등을 오가며 아시아와 유럽을 비롯한 국제 아방가르드 운동에 깊은 영감을 받았던 시기에 제작한 주요 작품을 ‘발굴’해 소개했다.

4. <https://www.levygorvy.com/wp-content/uploads/2020/01/Chung-Sang-Hwa-2020-Press-Release.pdf>